

지난 21일, 제 12대 총학생회선거가 있었다. 3년만의 경선을 통해 당선된 총학생회장 당선자 박귀혁씨와 부회장 당선자 김하늬씨를 만나보았다.

제12대 총학생회장, 부회장 당선자를 만난다.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하여!

이번 선거에 출마를 결심하게 된 주요동기는 무엇이며, 현재의 심정이랄까 당선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귀혁(총학생회장 당선자): 단지 내년의 총학생회를 좀 더 잘해 보자는 의미에서였습니다. 출마전이나 당선된 지금이나 평상시에 지녔던 생각들은 변함없이 지니고 있습니다.

김하늬(부회장 당선자): 출마에 있어서 가장 큰 모티브를 준 것은 언젠가 서울대의 대동제가 ‘대학을 뒤집어 엎자.’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것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었지만 그 때만 큼은 너무도 절실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출마를 결심했죠.

당선결과를 막 들었을 때는 마냥 좋았어요. 그러나 다음날, 이제 할 일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하니, 이것저것 준비할 것과 많고 실제하는 일은 없는데 마음만 바쁜, 그런 심정입니다.

제11대 총학생회에 대하여 간단한 평을 해주신다면?

박: 전대 총학생회를 보면 불학기 때는 열심히 활동한 듯 보였죠. 그런데 여름이 되어 연세대에서 사건이 터지고 내, 외부적으로 여러가지 조건이 좋지 않아서 그랬던지 하반기 활동이 좋지 않았던 것을 굉장히 안타깝죠.

김: 어느해나 그렇지만 총학생회 간부들은 항상 정열적으로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부들의 역량을 문제삼기 보다는 저희들이 총학생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기존과 많이 달랐습니다. 현재 여러 학우들이 지적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구조로 외친느 통일이나 노동문제보다는 실질적인 학우들의 삶에 더욱 초점을 맞추었으면 합니다.

선거기간 전부터 귀 선본과 총개모(총학생회개혁모임), 교편위의 관계에 관한 적지않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박: 물론 오해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출마한 후보들이 모두 교편위에 적을 두고 있었고 총개모에서는 의했던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이겠죠.

우선, 총개모는 교편위하고는 전혀 다른 단체입니다. 총개모는 총학생회의 운영에 대해 어느정도 비판을 가할 수 있는, 그래서 전체 학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결정해야 한다는 모입니다. 가을학기 시작과 더불어 활동을 개시하려 했으나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 뒤늦게야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구요.

총개모활동을 하면서 총학생회의 개혁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총학생회선거라고 생각했지요. 총개모가 곧 저희 선거운동본부로 치달았던 것은 아닙니다. 단지, 같이 일을 하고 토론하면서 마음이 맞았던 사람들과 선거운동을 시작했고, 여전히 함께 합니다.

저희는 총개모가 독립적이고 조직적이니 비판세력으로 남아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여지껏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와는 다른 분이 총개모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하구요.

김: 저는 개인적으로 교편위에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총학생회와 가까워서 접하면서 평소 그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선본과 총개모, 교편위의 연계에 관하여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이전의 활동에서 이미 개인적으로 논의했던 사항들이 선거운동하는데 문제의식들을 많이 반영할 수 있었고, 정책결정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을 뿐이지요.



복수 후보의 출마로 관심을 모았던 제 12대 총학생회장 선거는 박귀혁·김하늬 후보의 완승으로 끝났다. 사진은 선거유인물에 사용되었던 두 후보의 모습.

주장하시는 정책을 살펴보면, 몇개의 주류가 보입니다. 이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특별위원회에 관한 정책일 것입니다. 특히 학생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의 운영에 관하여 총학생회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여전히 사업추진의 독립성과 안정성은 유지하며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학복위원장의 임명 및 학복위원의 구성은 기존 학복위의 추천과 의함에 대폭 의거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의 학복위가 지녔던 문제점을 모두 해결한 것처럼 보이나 양측의 긴밀한 연계와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독립된 운영체계에 관한 실질적인 관여자가 아닌 쪽에서 단순히 책임만을 지겠다는 것은 문제해결에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이에 관해 답변해 주십시오.

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별위에 관한 생각은 기존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특별위는 총학생회장에 의해서 꾸려지는 단위, 그래서 선거 때 특별위에 대한 정책도 같이 가지고 나가지요. 특별위는 고유의 업무의 지속성을 위해 형성됩니다.

총학생회와 특별위는 결코 상반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특별위는 고유의 업무를 계속적으로 추진합니다. 또한 진행사업을 총학에 얘기하고 같이 논의합니다.

교지편집위원회(이하 교편위)에 관한 정책은 현재와 비교하여 어떻게 달라지면, 그 위상 변모는 어떠리라 생각하십니까?

박: 현재 우리학교에는 세계의 언론사가 있습니다. 어느정도 학교와의 연계에 의존하는 V.O.K.나 과거 원신문사와는 달리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고 책임을 지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런 반면, 교편위가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언론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특성상,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요.

교편위는 운영위에 참가하지 못해야 합니다. 교편위에 관한 모든 것은 전학대회에서 얘기가 되어야 하지요. 이것은 총학생회장이나 총학생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된 언론기관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총학으로부터 완전 독립된 언론사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회칙을 제정한다거나,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 이것이 승인을 받는다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총학생회비에서 교편위예산도 책정하고 있는 현재상황을 고려할 때, 독립 후의 교편위예산문제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겠지요.

학교측의 관여를 배제하고 학우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 학생측의 실질적인 언론기관으로서 문제제기를 하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며, 모

든 학우들이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의 장을 만드는 것이 교편위가 추구해야 할 모습일 것입니다.

전대 총학생회는 학내문제해결보다는 대외적인(특히 정치적 사안)에 치중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귀하께서는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지도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들만의 정치적 성향은 배제하며 단지 학우들의 정치적 욕구만을 지원할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학우들의 대표체인 총학이 추진하는 정치적 사업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입니까?

기본원칙은 학내사업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정치적인 욕구가 학우들에 의해 제기되면,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활동을 할지, 안할지의 여부는 결정할 것입니다. 학우들이 어떤 행동을 요구하고 원할 때만이 총학이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것입니다.

저희는 학우들이 원하는, 학우들에 의한 일을 할 것입니다.

총학생회와 학우들의 괴리감, 무관심은 어떻게 극복해나갈 생각이십니까?

박: 학우들이 총학생회를 단지 남이라는 시각으로 보았던 가장 큰 이유는 여태까지 민주적인 총학운영을 제창하였던 분들이 많았을 지라도 실제적인 민주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저희는 총학의 민주적인 운영을 이야기하고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적인 운영을 통해 참여의 폭을 넓히고 학우들의 당연한 참여동기를 유발시킬 것입니다. 개인적인 무관심은 어쩔 수 없더라도 집단적인 무관심을 차차 해소시켜 나가야겠죠.

마지막으로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김: 단지 학우들이 자기문제에만 빠져있지 말고 주위로 눈을 돌렸으면 합니다. 총학이 학우들에게 가르치는 식의 방식은 더이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내 이 맘 때쯤, 저희가 잘못된 일에 대해 엄청 욕을 먹어 봤으면 해요. 그만큼 학우들이 총학의 잘못을 알고 동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싶습니다. 다각도에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많이 들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박: 단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내년의 학생자치회를 기대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멋지게 해 봅시다.